

◆ [Focus] 인플레이션감축법 1주년, 주요 성과 및 현지 반응

◆ [What's News]

- (태양광) 美 상무부, 中 태양광 제품 우회 수출 최종 조사 결과 발표
- (규제) 美 상무부, 양철(Tin-mill) 예비 반덤핑 관세율 발표
- (232조) WTO, 美 수입품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에 부당 판결
- (전기차) IRA 효과에 미국 내 전기차 보급 대폭 확대

◆ [Top Headlines] 주요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## FOCUS

### [정책동향] 인플레이션감축법 1주년, 주요 성과 및 현지 반응

#### 1. 개요

##### □ 바이든 행정부, 인플레이션감축법 1주년 성과 발표(8.16)

- 동 법으로 미국의 기후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, 양질의 일자리 창출, 에너지 및 보건 지출 절감, 공정과세에 기여했다고 자평
  - 발효 후 1년 간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만 약 17만개의 일자리 창출, 1,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
  -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150여 건, 약 2천억 달러에 달하며, 상당수가 기존에 '소외'됐던 지역사회에 투자되었다고 분석
-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바이든노믹스로 정의하면서 적극 홍보
  - 중산층·저소득층 중심의 경제 성장 도모, 미국에 투자유치, 양질의(고임금, 조합화) 일자리 창출, 생계비 감축이 주 목표

## 2. 상 세

### □ 백악관이 선정한 인플레이션감축법(바이드노믹스) 1년 주요 성과

#### < 인플레이션감축법 주요 성과 >

<p>사상 최대의 기후 분야 투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'30년까지 약 10억톤의 온실가스 절감('05년 배출량 대비 41% 절감)</li> <li>· '30년까지 미국 전력의 80%를 청정전력으로 대체 예정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풍력 발전 용량은 현 수준의 3배, 태양광 발전량은 7~8배 증가 전망</li> </ul> </li> <li>· 전기자동차 판매 바이든 집권 이후 3배로 증가</li> <li>· “환경정의” 구현 및 소외 지역사회를 위한 기금 조성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환경보호청의 270억 달러 온실가스 감축펀드, 민간에서의 16억 달러 투자 등</li> </ul> </li> </ul>
<p>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한 對미 투자 유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,100억 달러 이상의 청정에너지 제조 관련 투자를 유치하는 등 약 5,0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민간 분야 투자 발생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전기차 공급망(700억 달러), 태양광 제조(100억 달러) 등</li> </ul> </li> <li>· 현재까지 약 17만개의 청정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향후 10년간 150만 일자리 추가 창출 예정</li> </ul> </li> <li>· 800여 개(80GW), 약 1,22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청정전력 발전 프로젝트 발표</li> <li>· 사상 최대 규모의 제조업·산업 투자 지출(1966년 대비 27% 증가)</li> <li>·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 유치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대출자 비율, 빈곤율, 실업률, 평균임금 등이 국가 평균보다 낮은 곳에 투자 집중</li> </ul> </li> <li>· 교외 및 농촌 지역에 에너지 보급 확대</li> </ul>
<p>가계 에너지 지출 절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'30년까지 전기 요금 9%, 휘발유 가격 13% 인하 전망</li> <li>· 플로리다, 미네소타, 위스콘신 주민들 대상 에너지 비용 절감</li> <li>· 전기 히트펌프 설치 등 일반 가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금 제공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히트펌프(2,000 달러)나 지붕용 태양광(설치비의 30%) 설치시 세액공제 제공 등</li> </ul> </li> <li>· 중고(최대 4,000달러) 및 신규(최대 7,500 달러) 전기차 구입시 세액공제 제공</li> <li>· 저소득 가구를 위한 가정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정책 마련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고효율 전자제품 리베이트(85억 달러), 저소득층 가정 개선 프로그램(8.37억 달러 등)</li> </ul> </li> </ul>
<p>보건 지출 절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건강보험 미가입자 역대 최저 수준, 약 1,500만명이 연 평균 800 달러의 보험료 절감</li> <li>·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10개 처방약 가격 인하 예정(9.1부)</li> <li>· 월간 인슐린 비용을 35 달러로 상한 책정(기존에는 최대 400 달러까지 지출)</li> <li>· 연장자 및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백신 무료 접종 제공('23.1월부)</li> <li>· 약품 가격 인상율이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회사에게 메디케어에 리베이트 지급을 의무화</li> <li>· 메디케어 가입자의 처방약 지불 상한을 연 2,000 달러로 책정('25년부)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가입자의 3분의 1(1,870만명)은 연간 \$400, 180만명은 연간 약 \$2,500 지출 감소</li> </ul> </li> </ul>
<p>부유층 및 대기업 증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기업 대상 최저 15% 소득세 부과, 자사주 매입세(1%) 등으로 10년 간 3,000억 달러의 세수 증대</li> <li>· IRS에 대한 투자로 '22 납세기간 동안 전년 대비 전화 응대 300만건 증가 및 납세자 14만명 추가 대면 지원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전화 응대 대기 시간 28분 → 3분</li> </ul> </li> <li>· 전자세금신고 건수 225배 증가 및 환급 방법 추가 등</li> </ul>

[자료] 백악관 팩트시트(8.16)

## □ 파이낸셜 타임즈의 IRA 및 CHIPS Act 평가

- 작년 8월 이후 약 2,24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제조업 투자 유치, 약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
  - \* 이번 8월에도 싱가포르 Maxeon Solar(10억 달러), 미 First Solar(11억 달러) 등 투자 발표
- 산업별로 반도체 투자 규모가 가장 크며, 지역별로는 조지아(14건)와 사우스캐롤라이나(11건)가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유치
  - \* 공화당 지역구가 금액 기준으로 80% 이상의 프로젝트 유치
- 우리나라 및 유럽 기업이 대미국 해외투자 주도
  - 우리나라 및 유럽 기업들은 각각 20건, 19건의 신규 투자 계획 발표
    - \* 중국발 주요 투자는 고선 하이테크(미시간, 24억 달러)와 푸야오 유리공업(오하이오, 3억 달러) 등임
- 노동력 부족이 신규 프로젝트 성패 가를 것으로 전망
  - '23년에만 50만명의 건설 노동자가 부족하며, '30년까지 엔지니어 초과 수요가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
  - 인력 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 완공 지연 외에도 완공 이후에도 제조시설 운영에 지장 가능성도 제기

## □ 주요 반응

- 민주당, “인류 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정책” 등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성과를 자평
  - 공화당 진영은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고 평가
    - \* 골드만삭스, IRA로 인한 비용을 1.2조 달러로 추산, 의회예산처 추정치의 약 3배
  - 조 맨친 상원의원, IRA로 인한 지역구민의 수혜를 언급하면서도 최초 의도와는 달리 극단적 기후대응 정책으로 변질되는 것은 경계

■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장석일

■ 자료원 | 백악관(8.16, 8.17), 재무부(8.16), 조 맨친 의원실(8.16), FT(8.16), 폴리τικο(8.16)

□ **[태양광] 美 상무부, 中 태양광 제품 우회 수출 최종 조사 결과 발표**

- (개요) 美 상무부,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동남아 우회 수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(8.18)
  - 상무부는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 4개국\*을 통해 태양광 제품을 우회 수출한 것으로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('22.12.2)했으며, 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
- 4개국 8개 기업 중 5개 기업에 중국산 제품 우회 수출 판정
  - 바이든 대통령이 상무부 예비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의회의 관세 부과 요청에 대한 거부권 행사('23.5)로 무관세는 '24.6까지 유지될 전망

\* 캄보디아, 말레이시아, 태국, 베트남

<기업별 중국산 태양광 제품 우회 수출 혐의 조사 결과>

순번	국가	업체	조사 결과
1	캄보디아	BYD Hong Kong	우회
		New East Solar	우회
2	말레이시아	Hanwha Q CELLS	-
		Jinko Solar	-
3	태국	Canadian Solar	우회
		Trina Solar	우회
4	베트남	Boviet Solar	-
		Vina Solar	우회

[자료: 상무부]

-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이준성
- 자료원 | 상무부 보도자료(8.18), 폴리τικο(8.18)

□ **[규제] 美 상무부, 양철(Tin-mill)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 발표**

- (개요) 美 상무부, 양철 제품에 대한 반덤핑 예비 판정 공개(8.17)
  -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덤핑 조사 결과, 중국, 독일, 캐나다 3국에만 예비 덤핑혐의 긍정 판정

○ (상세) 예비 덤핑마진은 중국(122.5%), 독일(7.02%), 캐나다(5.29%)

- 최종 관세 부과 여부는 ITC 산업 피해 판결 이후 최종 확정되며, 중국은 '23.12, 이외 국가에 대해서는 내년 초 공개 예정(폴리티코)

- 美 소비자브랜드협회(CBA)는 미국 내 양철 생산량이 수요의 50% 미만임을 지적하며, 반덤핑 관세 부과 시 미국 내 통조림 가격이 최대 30% 인상될 가능성을 제기

\* 독일, 캐나다 양철 수입 비중: 각 20%, 중국 양철 수입 비중 14%

▪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이준성

▪ 자료원 | 상무부 보도자료(8.17), 폴리티코(8.18), 파이낸셜타임스(8.18)

## □ [232조] WTO, 美 수입품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에 부당 판결

○ (개요) 세계무역기구(WTO) 분쟁처리 소위원회, 美 232조에 대응해 중국이 美 수입품 128개에 부과한 보복관세에 대해 '부당' 판결(8.17)

- 중국은 트럼프 前행정부가 232조에 따라 중국산 철강·알루미늄에 각각 25%, 10% 관세를 부과하자, 긴급수입제한 조치인 '세이프가드'의 정당한 활용을 강조하며 보복관세를 부과

\* 세이프가드: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 시, 일시적인 관세 인상, 수량 제한 및 관세 쿼터 등으로 대응하는 조치

○ (상세) 중국의 보복관세가 GATT 제1조와 제2조를 위반했다는 미국의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

\* 제1조: 한 국가에 부여된 우대 조치는 타국에도 동일 적용, 제2조: WTO 회원국 간 일정 세율 이상 관세 부과 금지

- WTO는 중국 관세율에 대해 (1)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적용, (2) 관세 양허표에 명시된 세율을 초과한 점을 근거로 정당한 세이프가드 활용이 아닌 것으로 판결

- WTO는 232조에 따른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도 무역 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판결('22.12)한 바 있어, 관련 법적 공방은 지속될 전망

- 중국은 60일 이내 상소할 수 있으나, 미국의 위원 선임 지연으로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관계로 실효는 적을 전망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정연호
▪ 자료원	인사이드 트레이드(8.17), 폴리τικο(8.16)

## □ [전기차] IRA 효과에 미국 내 전기차 보급 대폭 확대

- (개요) 현지 언론, 작년 IRA 입법 이후 미국 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었으며, 특히 한국·일본·EU에서의 차량 수입이 급증했다고 보도
- (상세) 미국 내 전기차 보급 확대, 한국·일본 등 자동차 수입도 대폭 증가
  - 올해 상반기 기준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528,362대로 대폭 증가, 작년 동기 대비 거의 59% 증가한 수치 기록
  - 당초 IRA 입법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·일본 등 전기차 수입 역시 전년 대비 57% 증가한 154,822대 기록
  - \* 미국 '23년 상반기 EV 수입은 전년 대비 일본(500%), EU(82%), 한국(26%) 증가 기록
  - 조 맨친(Joe Manchin) 의원은 “바이든 행정부가 IRA 입법 취지와 달리 시행하는 것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것이다” 비판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김준희
▪ 자료원	폴리τικο(8.18), 백악관(4.17)

## Top Headlines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The Wall Street Journal	<p><a href="#">Investors Fear a Financial Contagion in China</a> (중국발 금융 위기를 경계하는 투자자들)</p> <p>중령 국제신탁, 약 1,400만 달러 규모의 만기 상품에 대한 지급을 못한 것으로. 벽계원발 부동산 위기가 중국판 '리만사태'가 될까 투자자들 우려</p>
The Washington Post	<p><a href="#">Biden declares 'new era' of partnership with South Korea and Japan</a> (바이든,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 천명)</p> <p>금요일 캠프 데이빗에서 있었던 3국 정상회담에서 국방, 기술, 교육 분야 등에 대한 협력 발표. 3국 연례 정상회담, 탄도방어 협력 제고, 신규 핫라인 개설 등</p>
The New York Times	<p><a href="#">Biden Celebrates New Partnership Between U.S., South Korea and Japan</a> (바이든, 3국 간 새로운 협력체계 출범을 기념)</p> <p>중국의 역대 영향력 대응과 한-일간 갈등 해소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.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구축과 주요 기술에 대한 안보 확보 등이 논의</p>
CNN	<p><a href="#">Why stock investors are suddenly so scared</a> (왜 갑자기 주식 투자자들이 비관적으로 보는가)</p> <p>나스닥, S&amp;P 500 등 주요 지수, 8월 들어 하락세. 투자자들, 3월 이후 처음으로 시장을 부정적으로 전망. 중국 경제, 우크라이나 사태, 미 금융 취약성 등이 영향</p>
USA Today	<p><a href="#">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s participating in first debate</a> (공화당 대선주자, 첫 후보 토론 개최 예정)</p> <p>8월 23일 밀워키에서 공화당 대선주자들간 첫 토론회 개최 예정. 니키 헤일리, 론 디샌티스, 크리스 크리스티, 마이크 펜스 등 참석 전망... 트럼프는 불참 유력</p>

\* 미국 동부시간 8월 18일 17시 기준

## Notice

### 주요 경제·통상 일정

\*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

□ **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**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**경제통상리포트** (과거 리포트 : [☞헤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☞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3-24	<a href="#">바이든 행정부의 청정 수소 전략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</a>	2023.08월
US23-23	<a href="#">해외투자 심사 관련 상원 법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</a>	2023.07월
US23-22	<a href="#">희귀광물 갈륨·게르마늄 공급망 분석</a>	2023.07월
US23-21	<a href="#">IPEF 4차 협상 주요 내용 및 현지 기관 분석</a>	2023.07월
US23-20	<a href="#">최근 미국의 대중 수입 통계로 보는 변화</a>	2023.06월
US23-19	<a href="#">美 재무부 IRA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드스 의견서 주요내용</a>	2023.06월
US23-18	<a href="#">RE100, 회원사 재생에너지 전환 성과 분석</a>	2023.06월
US23-17	<a href="#">IPEF 5월 장관회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</a>	2023.06월

◆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, **기획조사** (과거 보고서 : [☞헤드림 심층보고서☞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2-기 획7	<a href="#">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</a>	2023.01월
US22-기 획6	<a href="#">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·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</a>	2022.12월
US22-기 획5	<a href="#">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</a>	2022.12월
US22-기 획4	<a href="#">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</a>	2022.11월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**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 : [☞유튜브 KOTRA TV☞](#))

인터뷰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시-14 (2023.6.30)	 <p>전미자동차연구원(CAR) '앨런 아메리' 대표 인터뷰 자동차 업계를 둘러싼 글로벌 지정학 경쟁과 향후 전망과 미래</p>	
코인시-13 (2023.6.26)	 <p>전 미국 국방부 안보 차관보 '켄달 스투리버' 인터뷰 경제 안보 관점에서 본 글로벌 공급망 재편!</p>	